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8105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7월 7일 (음력 6월 5일) 월요일

◀ 장흥 '개매기' 체험

지난 5일 장흥군 대덕읍 신리 앞바다 갯벌에서 관광객들이 숭어·농어 등을 잡는 '개매기' 체험을 하고 있다. 신리 앞바다에서는 오는 8월 2일(오후 1~5시)과 30일(정오~오후 3시)에도 개매기 체험행사가 열린다. '개매기'는 조석 간만의 차가 큰 바닷가 갯벌에 그물을 쳐 놓은 뒤 밀물 때 조류를 따라 들어온 물고기떼를 썰물 때 잡는 전통적 고기잡이 방식이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벼랑 끝에 몰린 닭·오리 농가

AI 종료 한 달 … 사료값 폭등에 정부 지원은 '그림의 떡'

전남지역의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농가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정부가 내놓은 지원대책은 현실성이 없는데다 폭등하는 사료값 등을 감당하지 못해 사육을 포기하는가 하면 사채까지 끌어쓰는 농가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을 맞아 닭·오리의 소비가 다소 늘고 있긴 하나 AI 파동 이후 사육두수를 줄이고, 사료값 등 생산비만 크게 오른 탓에 농가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부채상환 독촉장 뿐이다.

6일 닭·오리 축사가 밀집한 영암군 시종면과 덕진면에서 만난 농민들은 한결같이 "요즘처럼 힘든 적이 없었다"며 한숨만 내쉬었다.

이 지역은 AI 발생 지점에서 반경 10km 이내에 포함돼 지난 5월 27일까지 이동 제한 조치를 받아온 곳이다.

AI 발생 직전인 4월 4일 새끼 오리 2만4천마리를 입식한 이종호(55·영암군 덕진면)씨는 "3천만원이 넘는 피해를 봤으나, 살처분 농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외상으로 구입한 기름값과 공과금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2년 4억5천만원을 투자해 닭 사육에 뛰어든 공구상(52·영암군 시종면)씨는 부채만 5억여원이다. 공씨는 매년 6회(1회당 7만마리)씩 사육해 연간 8천여만원의 소득을 올려 이자(연 2천 500여만원)와 자녀 교육비, 생활비, 시설 보수비 등으로 지출해 왔지만, 이동 제한 조치로 2차례에 걸쳐 사육을 포기하면서 2천여만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정부에서 피해 농가에게 지급하겠다던 보상비는 아직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

닭 7만 마리를 사육해온 박주석(58·영암군 신북면)씨도 AI 발생지역 반경 3km내에 들어 이동 제한 조치 등으로 3천만원 이상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AI 이동 제한 조치 해제로 최근 7만마리를 출하했으나 그동안의 피해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이다. 생닭 출하 가격은 AI 발생 이전 수준보다 40% 오른 kg 당 1천625원대로 회복됐지만, 사료값 등이 70%까지 올라 별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

정부 수매와 긴급 융자 조치 등 각종 지원대책도 현실성이 없어 농가들이 더욱 허탈해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영암지역 소규모 오리농가 10곳이 모여 만든 한국친환경오리영농조합 이재복(54) 대표는 "목을 매달고 싶은 심정이다"고 말했다. 매주 3만마리 이상의 친환경 오리를 출하하던 이 대표는 AI 사태 이후 3천마리로 출하수를 낮췄다. 이마저도 판매가 안돼 AI 피해 대책으로 마련된 정부 수매에 의지해 왔지만, 가격이 턱없이 낮고 대금마저 한달 이상 지연돼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사료대 등을 조달하기 위해 사채까지 쓴 상황인데 5월 말에 수매한 1만1천마리(6천500만원 상당)의 대금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서 "부채로 농장에 압류조치가 취해진 농민들은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하소연했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공공부문 승용차 15일부터 홀짝제

정부 고유가 대책

정부는 6일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8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승용차 홀짝제를 시행키로 했다. 〈관련기사 4면〉

정부는 또 이러한 내용의 1단계 위기관리 조치를 조기 발동하고, 민관합동 국가에너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원유수급 상황을 점검하면서 유가가 170달러를 돌파할 경우 민간부분 에너지 절약 강제조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가진 뒤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국제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설 때 발동할 예정이었던 1단계 위기관리 조치를 앞당겨 시행하고 향후 유가동향 및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적인 조치발동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현재의 공공부문 승용차 요일제를 홀짝제(2부제)로 전환하고 출퇴근 공무원을 위한 통근·셔틀버스 운행, 업무택시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승용차 홀짝제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시행된 바 있으나 고유가에 따른 차량 홀짝제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또 관용차 운행의 30%를 감축하고 현행 관용차량 1만5천300대의 절반을 2012년까지 경차·하이브리드차로 바꾸기로 했다.

건물 적정 실내온도도 여름철 26도 이상, 겨울철 20도 이하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여름철 27도, 겨울철 19도로 각각 1도씩 조정하고 엘리베이터 사용 제한도 '4층 이하 금지, 5층 이상 격층 운행'으로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 조명시설의 사용을 금지하고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과다조명 구간 가로등은 심야시간(밤 11시~다음날 일출)대에는 소등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중앙정부 43개, 지방자치단체 272개, 교육청 199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305개 기관 등 모두 819개 공공기관에 '고유가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강화' 총리 특별지시를 시달할 예정이며 청와대는 자체적으로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한다.

정부는 민간부분에 대해선 에너지 자율절약 대책을 적극 권장하되 원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조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새 대표에 정세균씨

집권 여당에 맞설 민주당 새 대표에 정세균 후보가 선출됐다. 〈관련기사 3면〉

6일 서울 올림픽 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서 정세균 후보는 전체 대의원의 57.6%(5천495표)를 득표, 과반 이상을 넘기면서 결선 투표없이 당 대표로 뽑혔다.

추미애 후보는 26.5%(2천528표), 정대철 후보는 15.0%(1천517표)의 득표에 그치면서 과반 확보에 실패, 결선 투표시 결행하기로 했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됐다.

정 의원이 신임 대표에 선출된 것은 대선과 총선의 잇단 참패로 사분오열된 개혁진보세력을 하나로 묶어 대안야당으로 발돋움하는데 '화합형 리더'가 적임자이라는 '당심'의 선택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대표 경선과 함께 대의원 1인 2표 제로 실시된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9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인 끝에 송영길 후보가 16.1%의 득표로 1위를 차지했다.

또 김민석 후보가 15.5%로 2위, 박주선, 안희정, 김진표 후보가 각각 13.7%, 12.8%, 12.5%를 득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이어 기아차 파업 확대

지역경제 타격 '눈덩이'

금호타이어 노조가 8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한데 이어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도 7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부분 파업 시간을 늘릴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7일 금호타이어 노조에 따르면 8일 오전 조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 뒤 당일 오후 6시 광주공장 광장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기로 했다.

금호타이어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파업에 따른 손실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기본급 13만4천690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금호타이어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 동안 3교대 4시간씩 실시된 부분 파업으로 인해 타이어 생산 차질 18만본, 생산손실액 180억원을 나타냈다. 이어 8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경우 하루 생산 차질은 5만5천본, 생산손실액이 5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기본급 8.9% 인상, 통상급의 300%를 생계비 부족분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는 7일 임시 대의원회의를 갖고 8일이나 10일 중 하루 주·야간 4시간씩 부분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2일 주·야간 2시간씩 파업으로 생산 차질 310대, 44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향후 4시간으로 파업 시간이 늘어날 경우 생산 손실은 하루 600여대, 90억여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